

## 중앙선 용문~서원주간 복선전철 종합시험운행 개시

- 9월 25일 개통 예정...청량리~원주 1시간이면 도착 -

공단은 지난 7월 13일 중앙선 용문~서원주간 단선철도를 복선으로 개량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한 후 오는 9월 2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개통된 청량리~용문(41.2km)구간에 이어 금년 9월에 용문~서원주(27.9km) 구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청량

리에서 원주까지 운행거리는 11km 단축(108km→97km)되고 운행시간은 새마을호열차 기준으로 35분이 단축(95분→60분)되어 청량리~원주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며, 선로용량도 136회로 기존의 1.7배인 85회 증대됨에 따라 철도수송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본격 추진

- 오송~광주승정간 2개 공구, 총 공사비 3033억원 계약 체결 -

공단은 2014년 12월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승정간)의 궤도공사가 지난 16일 계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303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궤도공사는 2개 공구로 분할하여 지난 6월 29일 입찰을 시행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4일 궤도1공구(오송~익산간)는 궤도공영(주), 궤도2공구(익산~광주승정간)는 삼표이앤씨(주)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본 공사 구간 중 정거장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로 시공되며,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공정 및 품질 관리를 통하여 2014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와 1개사에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1사 1공구 낙찰제 등이 도입되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레미콘을 지급자재로 발주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 및 동반성장에도 기여하였다.

##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공급자 선정

- LS산전(주) 컨소시엄과 1990억원에 공급계약 체결 -

공단은 2014년 12월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승정)의 열차제어시스템 공급자로 'LS산전(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금년 3월 23일부터 국제경쟁입찰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3차례 유찰되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종 입찰에 참여한 LS산전(주) 컨소시엄과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시행하여 당초 컨소시엄이 제안한 2329억원의 85% 수준인 199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은 고속열차가 시속 300km/h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선형열차의 위치, 선로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운행속도를 차량으로 전송하여 열차가 허용속도 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제어하는 설비로, 이번에 공급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은 경부고속철도에 적용된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설비로 ATC 및 연동장치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장비 간 인터페이스 부분이 줄어 유지보수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미 프랑스 TGV가 운행하고 있는 지중해선, 동선 및 영국의 유폴터널~런던 구간에서 운용 중에 있는 설비로 확인되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건설공사 입찰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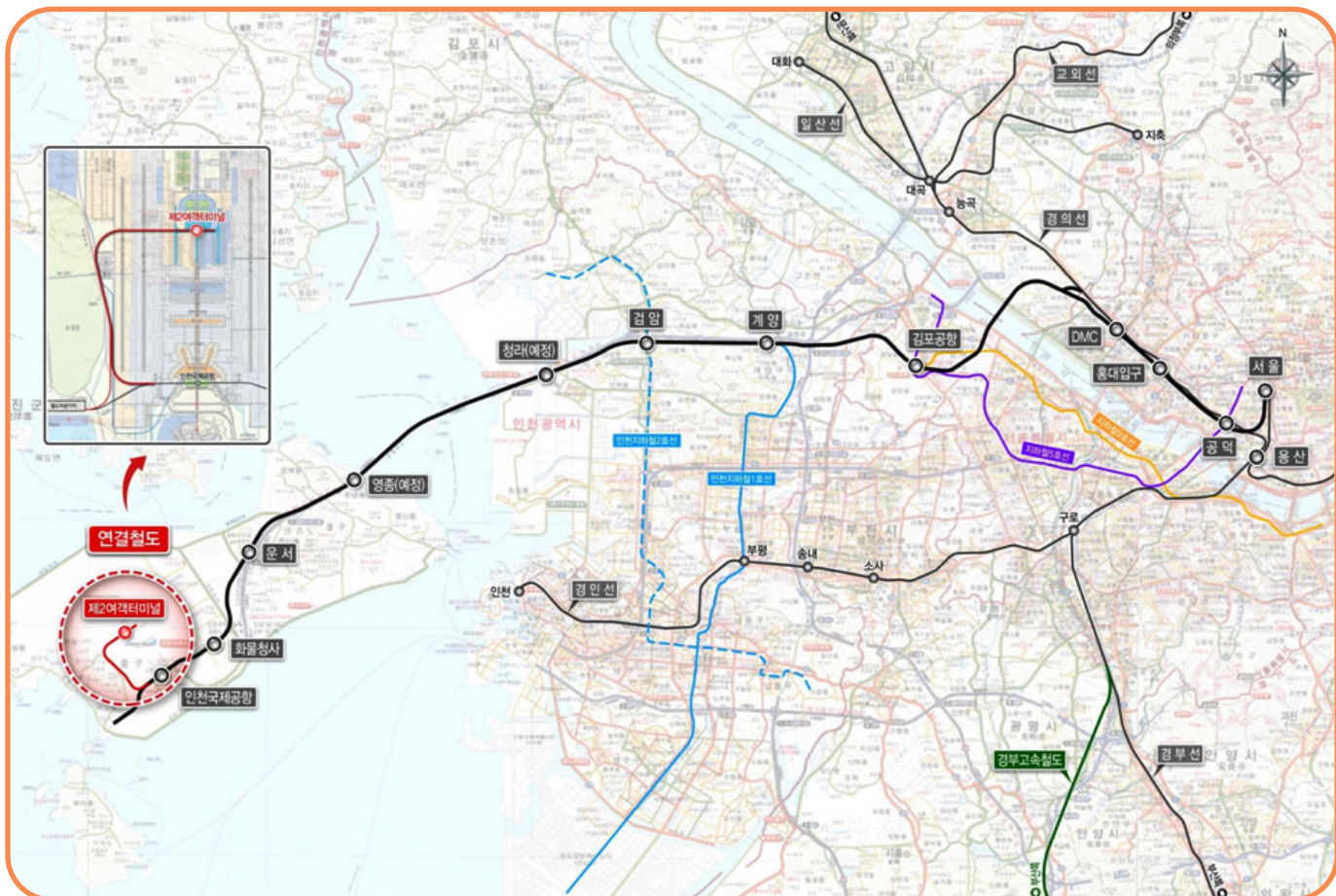
- 총 연장 5.7km, 공사비 3833억원... 2017년 완공 예정 -

공단은 지난 20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운행 중인 인천공항철도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연장 5.7km)의 입찰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사업은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는 사업비 3833억원 규모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로 입찰이 시행되며, 금년 11월에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가 개통되면 1일 2만4557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부·호남선 KTX를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갈아타는 불편없이 직접 갈 수 있으며,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14분('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시 기준)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선 덕소~원주 매향전철변전소 수전(가압)

- 적극적 소통 통해 반대주민 협조 유도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팔당~원주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매향전철변전소(경기도 양평군 소재)까지의 가압에 성공하였다.

2009년 1월에 시작된 본 공사는 3년 6개월에 걸쳐 사업비 572억원, 연인원 14,000명, 굴삭기 등 장비 1,600대를 투입해 양평군 지평면 한전지제변전소에서부터 양동면 매향전철변전소 사이의 산악지대를 통과하며 매향전철변전소 외 4개소 변전설비와 지중선로 2.1km, 가공선로 9.8km, 철탑 31기를 신설하는 난공사였다.

특히 철탑위치 변경이나 보상이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수개월 간 중지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10여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41여 차례의 개별대화 등 끈질긴 노력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매향전철변전소는 한국전력 지제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중앙선 전차선에 공급하는 설비이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 금년 3개 사업장 갈등 조기해소 기대

- 건설본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19일 본사 상황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김영환 위원장 등 9명) 및 공단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날 제1사업장인 '수도권고속철도 중앙아파트 집단이주 요구 갈등' 안건을 시작으로 5개 사업장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이중 3개 사업장을 갈등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갈등해결을 위하여 김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9명 위원들의 심도있는 자문이 이어졌다.

갈등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3개 사업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들의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갈등 조기해소를 통한 철도건설 적기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철도건설현장 갈등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2009년도에 발간한 갈등해결 사례집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08년부터 매년 2~3회 실시)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111명 교육이수)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부터 총 15개 사업장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본부 변태윤 기자>

